

● 전력연구, 신사업 핵심기술 확보에 3,000억 투입

한전 전력연구원은 국내 전력산업의 발전에 있어 가장 큰 역할을 해 온 연구조직이다. 그런 전력연구원이 올해 신기술·신사업의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3,000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무엇보다 해당 성과를 산업계에 공개하는 개방형 R&D 체계를 구축키로 하면서 향후 관심은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 마이크로그리드·해상풍력 등 핵심기술 조기 확보 총력 ● 수요자 중심 과제 개발·성과지향적 연구 문화 확산키로

한전 전력연구원(KEPRI, 원장 최인규)은 지난달 12일 한전 조환익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R&D 개방·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전력연구원은 새로운 비전인 'Open and Creative R&D First Mover, KEPRI'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 개방과 신기술·신사업 개발을 통한 창조경제 성과의 창출에 매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전력연구원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R&D 개방·혁신 계획을 통해 우선 개방형 연구체계를 확립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전력연구원은 학계와의 기초연구 확대를 통해 미래유망기술을 확보하고, 연구개발 인력·인프라·성과를 산업계에 공개하는 등 개방형 R&D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연구기관,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전력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동반성장을 이뤄 나갈 방침이다.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투자도 대폭 증가된다. 전력연구원은 정부의 에너지 6대 신산업과 한전의 미래창조발전전략의 12대 신성장동력사업 등 신기술·신사업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해 창조경제 실현과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작년 대비 1,000억 원이 증가한 3,000억 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할 것임을 밝혔다.

미래유망기술, 기초 아이디어 등 도전적 과제를 확대하고, 전력품질 향상과 송전선 건설 등 한전의 경영연안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추진키로 했으며, 수요자 중심의 과제 개발과 성과지향적 연구 문화의 확산을 통해 전력연구원이 환경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한전 조환익 사장은 전력연구원이 과거 원가절감과 품질향상 등 연구개발을 통해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음을 언급하며, 전력산업과 한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력연구원이 일신월이(日新月異)의 자세로 도전과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사장은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해 창조 경제의 성과를 창출하고, 인력 양성, 연구성과 홍보와 활발한 대외 네트워크 구축 등 올해를 변화의 원년으로 삼아 가시적 성과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력연구원 최인규 원장은 "나주 빛가람 새시대에 창조와 융합으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전력연구원 모두가 개방·창조·도전·변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개방·도전적 연구체계를 구축해 전력산업계의 동반성장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전력연구원이 새롭게 선포한 비전인 'Open and Creative R&D First Mover, KEPRI'의 경우 'Open'은 연구인력, 연구설비, 연구수행 및 연구성과를 외부에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개방형 연구체제를 구축하지는 의미이며, 'Creative'는 미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창조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의미다. 또한, 'First Mover'는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창의적인 선도자이며 글로벌 전력기술을 리딩하는 전력연구원을 상징한다.

전력연구원은 새롭게 선포된 비전을 바탕으로 한전의 신성장 사업장 프로젝트인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마이크로그리드(Micro Grid), 해상풍력기술 등 시장지향적인 R&D, 그리고 사회적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비전주도형 R&D를 통해 뉴 스타트 기회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한전 조환익 사장(오른쪽 세번째)이 전력연구원(원장 최인규·오른쪽 두번째)을 방문,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R&D 개방·혁신 계획을 보고 받았다.